남원 크라우드 펀딩 사업 '주목'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판로 확대 위해 제품 홍보… 온라인 소비자 눈길 사로잡아

남원시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업이 온라인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혁신적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온라인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마케팅 방법으로,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메이커스, 와디즈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중 신제품을 출시한 4개 기업을 선정, △(유)메밀꽃피는항아리(치즈&로제&현미떡볶이) △지리산맑은물춘향골영농조합(도토리묵사발세트) △(유)웅치마을영농회(지켜줄깨 에너지바) △(유)하이오백(시즈닝 김부각) 등이 참여하며, 제품별로 40일간 네이버 해피빈 펀딩 플랫폼(펀딩 페이지 주소 https://happybean.naver.com/fundings/home)에서 진행된다.

지리산맑은물춘향골영농조합 도토리묵사발세트

메밀꽃피는항아리는 15일 이내 도정한 남원산 햅쌀로 만든 떡볶이 밀키트인 모짜렐라 치즈 떡볶이와 무항생제 돈육을 첨가한 로제 떡볶이, 국산 콩가루로 단백질 함량을 높인 현미 떡볶이 세트는 K-Food로 새롭게 부상한 떡볶이를 한층 건강하게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목표 대비 800% 펀딩율로 순항중이며, 펀딩은 8월 2일까지 진행된다.

춘향골영농조합의 100% 국내산 졸참나무 재롱이 도토리를 갈아서 직화방식으로 끓여낸 '지리산 참묵'과 동치미육수 세트는 건강한 여름 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런칭 10일만에 300명이 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고 펀딩은 오는 8월 7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지리산 자락 웅치마을에서 '지켜줄깨 에너지바'와 찹쌀꽃 부각으로 유명한 (유)하이오백의 신제품 '시즈닝 김부각'도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은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의 니즈를 체감하고,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음주측정 거부 논란 사무관 승진 의결 취소

남원시 인사위원회 열고 결정

남원시는 17일 남원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측정 거부 논란을 빚은 사무관 A씨에 대해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시는 지난 15일 사무관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 중인 A씨가 승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승진 인사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었으나, 남원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징계나 인사 처분을 할 수는 없었다며, 직원들의 상실감과 사회적 동요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이에 남원시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회는 A씨의 승진 여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17일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최경식 시장은 이 결정을 존중하고 직위 승진을 취소하면서 새로운 승진심사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이에 앞서 남원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진상조사에 나섰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추후 공무원 3대 주요 비위(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운전과 갑질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갑질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염기남 신임 순창부군수, 군정 현황 파악 나서

순창군 염기남 순창부군수가 17일과 18일 양 일간에 걸쳐 순창군 관내 주요사업장을 돌며 군정 현황파악에 나섰다.

염 부군수는 첫 날인 17일에는 쉴랜드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거점공간 조성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창군 가족센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동계 공공임대 주택조성 현장 등 13곳을 방문한다.

쉴랜드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힐링의 메카인 순창의 쉴랜드에 회의실과 개별오피스, 휴게공간 등이 있는 공유사무실 공간과 숙박동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군은 생활(관계) 인구를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염 부군수는 "일도 하면서 휴식도 취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형태가 점차 늘고 있어 워케이션 사업영역의 미래가 밝다"면서 "시설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전국을 대표하는 워케이션 공간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염 부군수는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개선 공사 진행중인 순창읍 생활체육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염 부군수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고 맞는 첫 번째 도민체전이라 그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도내에서 체육인과 동호인, 관계자 등이 대규모로 모이는 행사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동계 공공임대 주택 조성사업, 공설추모 공원 조성사업 현장 등을 둘러보며 첫 날 일정을 마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지난 16일 서울역에서 정부-공공기관-지자체 간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차 타고 임실 여행 떠나자"

임실군, 정부·공공기관·지자체 철도여행 활성화 업무협약

"기차 타고 임실 가서 옥정호 출렁다리도 걸어보고, 치즈테마파크도 구경해요".

이제는 열차를 타고 임실을 방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난 16일 서울역에서 정부-공공기관-지자체 간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국토부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철도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와 임실군을 비롯한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23개의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해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이 상품은 철도공사가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테마로 만들어졌으며, 철도를 이용 시 할인된 가격으로 임실군을 방문할 수 있다.

문체부 역시 '디지털 관광주민증'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도 정부의 방침과 연계하여 열차 이용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제휴 할인과 특산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실군의 경우 전라선 철도 KTX 임실역 정차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임실역-임실치즈테마파크-옥정호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프로그램도 개발 준비 중에 있어, 임실군 관광열차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역의 발전과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해 철도여행 상품개발 등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 천만관광 임실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천만관광 임실 실현을 위해 이같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타 지자체와의 협력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임대주택 14호 공급 예정… 주거복지 향상 기대

순창군이 조성하는 동계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가 오는 9월로 다가오며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군은 8월 말 준공 예정인 동계면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사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동계면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총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된 이 주택은 지상 3층, 연면적 1,155㎡ 규모의 연립주택 1동으로, 전용면적 65㎡ 10세대와 32㎡ 4세대 등 총 1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월 임대료는 65㎡는 17만 3천원, 32㎡는 8만 5천원으로 인근 시군보다 저렴해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나 청년 등에게 최적의 주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대상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 고령자 및 농촌유학 가족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며, 순창군청 농촌활력과(공공주택팀) 또는 동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시민 불편 해소 위한 행정구역 조정 나서

남원시는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에 나선다.

행정구역 조정 지역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지역, 지형과 마을 여건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도로 신설, 수계 변동 등으로 생활권 및 학군이 변동된 지역이나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역 등이 경계조정 대상이 된다.

남원시는 지난 6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수조사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행정지원과에서는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부서 협의, 조례 개정, 경계 조정을 거쳐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최적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호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시니어클럽, 지역인재 양성 애향장학금 기탁

임실시니어클럽(관장 김윤호)이 지난 16일 임실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재)임실군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1,175만4,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비전 2034 선포식 행사 일정 중에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한 기탁금은 임실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매월 지급받은 활동비의 일부를 모금해 기탁한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8차례 걸쳐 5,443만1,000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윤호 관장은 "올해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기탁을 하게 됐다"며 "기탁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미래를 이끌 지역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걷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